

탈북청소년의 새로운 도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‘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’ 개최(7.21.~23.)

-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(강원도 평창군 소재)에서 7월 21일(월)~23일(수), 2박 3일 동안 탈북청소년이 참여하는 ‘레저스포츠 현장체험 프로그램’을 진행했다.
 -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2월 17일 체결된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, 탈북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자존감 형성, 또래 간의 유대감 증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.
 - 스케이트, 하강레포츠, 활쏘기,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여하며 스포츠의 즐거움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에는, 통일전담교육사가 상주하는 초등학교·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60여명이 참여했다.
-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“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 기뻐고, 스케이트·활쏘기 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게 되어 즐거웠다”, “하강 체험할 때 너무 떨렸지만, 내려오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”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.
- 통일부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탈북청소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,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통일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「제1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」(5월) △「찾아가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」(6월) △스포츠경기 관람 예매권 지원 사업(매월) 등을 실시했으며, 하반기에도 △「제2차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캠프」(9월), △「국민체력 100」*(9월)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.

* 체력 및 건강 상태를 측정·평가하고, 운동 관련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서비스

별첨 : 캠프 사진

담당 부서	인권인도실 자립지원과	책임자	과장	전은정	(02-2100-5802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탁	(02-2100-5804)

